



환경 ISC가 제시하는 그린뉴딜에 관한 고찰

HRDK 한국산업인력공단



그린뉴딜이란?

그린뉴딜의 캐치프레이즈는 지속성이다.

지속함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이다.

그 중심에 환경과 사람이 있다.

저탄소의 모멘텀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
전환을 꾀한다는 것.



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
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,
이 같은 그린뉴딜의 중심엔
쓰레기 처리에 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.





서울, 부산,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하루에 9,500여톤,
3,400여톤, 3,100여톤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.
이처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무단 배출했을 경우,
그 쓰레기들이 자연 분해하는 기간은
과연 얼마나 될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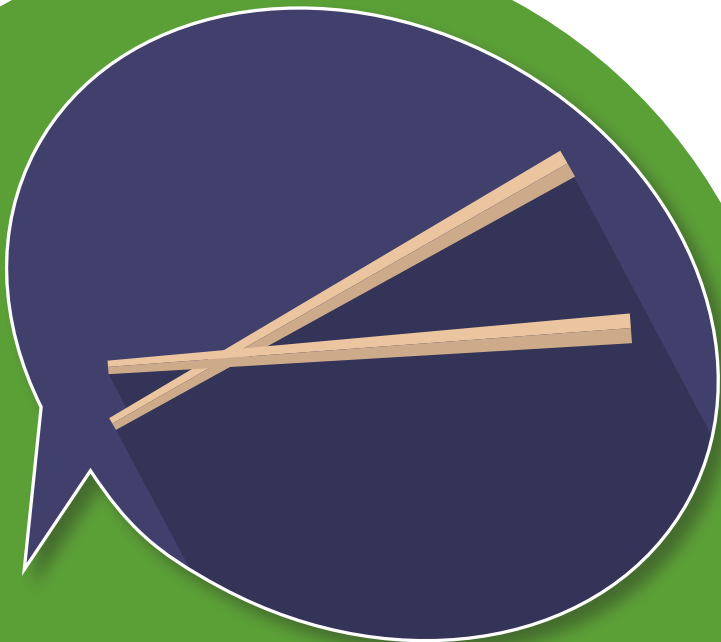


우유팩
5년



담배필터/플라스틱

12년



나무젓가락/일회용

20년



캔 종류
100년



비닐봉지
300년



스티로폼

500년



유리병
1000만 년



지구온난화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
대한민국은 이제 탄소배출량 저감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.
비록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더욱 편해질 내일을 위해
일회용 포장재 사용부터 줄여봄이 어떨까.

바로 오늘부터 말이다.

